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친사회성과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과 도덕판단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and South Korean Children's Moral Reasoning and Moral Judgement on Pro-sociality and Violenc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어린이집

교 사 이 혜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교 수 이 순 형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re Center

Teacher: Rhee Hye-Young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Yi Soon-Hyu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and South Korean children's pro-social moral reasoning, pro-social decision-making, moral reasoning and moral judgement on violence. The participants were 82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and 186 South Korean children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All respondents answ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6 stories of pro-social moral conflicts and 4 stories of moral conflicts on violenc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Scheffé test, repeated measure ANOVA and one-way ANOV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showed a bigger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pro-social moral reasoning in close relationship situations and that in distant relationship situations than South Korean children did. In the 11-13 year old group,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showed lower level of pro-social moral reasoning than that of South Korean children. Second, children showed more helping responses in close relationship situations than in distant relationship situations. The 11-13 year old group Children also showed more helping responses than the 14-16 year old group did. Third, 11-13 year old South

Korean children showed a higher level of moral reasoning on violence than the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did. Finally,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judged violence with a justifiable intention as being more wrong than South Korean children did.

주제어(Key Words): 새터민 아동(North Korean child defectors), 친사회적 도덕추론(pro-social moral reasoning), 친사회적 의사결정(pro-social decision-making),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moral reasoning on violence),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moral judgement on violence)

I. 서론

최근 들어 새터민의 입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새터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을 새롭게 일컫는 말로, '새로운 터에 자리잡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은 2006년 현재 7,971명(김성운, 2006)이며, 그 중 새터민 아동의 수는 10세 미만 아동이 303명, 10세-19세미만의 아동이 831명에 이른다(통일부, 2006). 이에 따라 새터민 성인 뿐 아니라 새터민 아동의 남한사회에의 적응과 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적응 실태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 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양상이나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새터민 아동의 구체적인 발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인지의 한 영역인 도덕성에 관한 이론에서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인지 발달이 병행된다고 주장한다(Piaget, 1965). Piaget는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아동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인지구조를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다(김정규, 박찬주, 1991). 보다 성숙한 도덕추론과 도덕판단을 위해서는 자아중심성의 극복과 함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의 개념을 발달시켜 독자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은 성인 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 성인 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타인의 내적인 상태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의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생의 초기에 일어날수록 그 효과가 크며, 초기경험 효과는 이후의 지적발달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누적적 가치를 지닌다(Bloom, 1964).

도덕발달이 보다 구체화되고 정교화되는 아동기에 새터민 아동은 가족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적절한 교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들은 북한에서 열악한 경제상황과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교육기회의 부재를 경험하며,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중국 및 제3국에서 중국 공안의 추적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

다(엄경남, 2001; 전익수, 2001).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노동력 착취, 불법감금, 인신매매, 성폭행 등 인권유린의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가까운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유발시킨다(전우택, 2000). 특히 새터민 아동의 경우 식량난 이후 붕괴된 북한의 교육 여건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도피생활은 수년간의 학업 공백으로 이어져 같은 또래의 남한 아동보다 낮은 수준의 학업능력을 보인다(한만길, 현주, 김창환, 오기성, 1999). 이와 같은 외상적 경험으로 인해 도덕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지적 자극 및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새터민 아동들은 남한의 일반아동과 다른 도덕발달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숙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의사결정은 실제 생활에서 타인을 돕고 적응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친사회적 추론 및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이 수혜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Farver & Branstetter, 1994; Knight, Bohlmeier, Schneider, & Harris, 1993; Staub & Sherk, 1970; Werebe & Baudonneire, 1988), 친숙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친구 또는 사회체중이나 성별 등의 속성이 자기와 유사한 아동에게 더 관대하고, 그들을 더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Staub & Sherk, 1970)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수혜자와의 관계는 도움을 받는 수혜자(受惠者)와 도움을 주는 시혜자(施惠者)간의 심리적인 거리로 정의하며, 가까운 관계와 먼 관계로 구분한다. 즉 가까운 관계인 사람들일수록 서로의 요구에 더 민감하고, 상대와의 유사성을 높게 지각하며, 이러한 특성은 상대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키고 도움의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Hornstein, 1976; Krebs, 1975)는 것이다. 이옥경(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은 수혜자와의 관계가 먼 경우보다는 가까운 경우에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나이든 아동일수록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는 결정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유사성 지각, 차후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상호의존과 도움에 대한 의무 지각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정서 상태나 필요를 해석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될수록 도덕추론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

과(Eisenberg-Berg & Hand, 1979)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 및 의사결정이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 Eisenberg는 친사회적 도덕추론이 여러 단계를 거쳐 위계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되는 범주의 종류와 빈도가 변화해나감으로써 발달한다고 보았다(정명숙, 2002).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령 전 아동들과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초등학교 기간 동안 자기지향성에서 타인지향성으로 도덕발달이 변화한다고 하였다(강명옥, 1984; 박미화, 1989; Eisenberg-Berg & Roth, 1980; Eisenberg, N., Lennon, R., & Roth, K., 1983; Eisenberg, N., Shell, R., Lennon, R., Beller, R., & Mathy, M., 1987; Eisenberg, N. & Miller, P. A., Shell, R., McNally, S., & Shea, C., 1991). 초등학교 아동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발달을 연구한 Eisenberg-Berg(1979a)도 연령에 따른 추론의 차이를 보고 하였다. 초등학교생은 주로 욕구충족적이며 정형화된 추론과 승인과 인간관계지향적 추론, 타인의 필요지향적 추론을 보였다. 반면 고등학교생은 초등학교생이 사용하는 추론유형도 사용하였으나 명백한 공감적 추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보다 성숙한 추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의 종단적, 횡단적 연구들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가 높아지며 보다 성숙한 추론 유형의 사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강명옥, 1984; 김종경, 1991; 박미화, 1989; Eisenberg-Berg & Neal, 1979; Eisenberg-Berg & Roth, 1980; Eisenberg et al., 1983; Eisenberg et al., 1991; Tietjen, 1986).

친사회적 행동 또한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Elmer & Rushton, 1976; Eisenberg-Berg & Hand, 1979; Green & Schneider, 1974; Staub, 1971).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관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우정이나 친구의 요구에 더 민감할 것이므로(Berndt, 1981) 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보다 민감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 후기는 인지발달 측면에서는 타인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삶의 범위가 가정을 벗어나 학교나 또래 관계로 확대되면서 겪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따라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요인과 상관요인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학령전기 혹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두세 연령집단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도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에

대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고등학생과 같은 아동기 후기를 포함하여 아동기 전반에 걸친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에 대한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대인폭력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새터민 아동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새터민 아동들은 탈북 과정에서 다양한 위협과 폭력상황에 노출되고, 잠재적인 폭력성을 보인다고 예측되는 바(양정훈, 2005), 이러한 사회적 경험의 영향을 받았을 이들의 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폭력적 영상이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의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도덕추론 능력 발달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Krcmar & Valkenburg, 1999; Rosenkoetter, Huston & Wright, 1990). 특히 Krcmar와 Valkenburg(1999)는 텔레비전 폭력과 판타지 폭력을 보다 많이 시청하는 아동은 도덕적 딜레마에서 묘사된 정당화된 폭력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도덕추론의 발달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의도에의 주목과(Piaget, 1965),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과 벌의 회피보다는 타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공평성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Kohlberg, 1984)을 시사한다. 또는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에서 아동은 의도에 따라서 공격자의 행위가 긍정적 의도를 토대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부정적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 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다(Rule & Ducker, 1973). 폭력에 대한 아동의 도덕추론 및 판단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공격 행동의 의도에 따라서 아동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서도 폭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Astor, 1994). 특히 새터민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잠재적 공격성을 보이며(양정훈, 2005), 학습공백으로 적절한 인지적 자극을 받지 못했던 것을 고려할 때,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 시 행동 이면의 의도에 대한 새터민 아동의 고려수준이 남한 아동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인폭력의 의도와 결과가 폭력에 대한 추론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주로 12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아동기 초기 뿐 아니라 중기, 후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에 대한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새터민 아동에 대한 연구는 남한에서의 학교생활 및 전반적 적응 실태파악 또는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연

구 등이 주로 질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새터민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새터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과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이 남한 아동과 비교하여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은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은 대인폭력 의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과 대인폭력 의도 및 연령에 따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새터민 아동 82명과 남한 아동 18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남한에 있는 새터민 아동의 수는 전체 새터민의 약 0.1%정도인 약 830명으로(통일부, 2006),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새터민 아동의 수는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최대한 수집된 새터민 아동의 수가 80여명 정도였으며, 추리통계의 특성상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 아동을 더 많이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상 무선표집을 할 수 없으므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새터민 아동들을 눈덩이 표집하여, 서울

시 각 지역의 복지관 및 새터민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터민 아동의 경우, 북한에서의 교육기회의 제한과 제3국에서의 학업공백으로 인해 같은 연령의 평균적인 남한 학생에 비해 학업수준이 떨어지며(김형태, 2004), 남북한 교육제도의 차이로 인해 남한학교 편입 시 대부분 2-3년을 낮추게 되어 실제 연령과 학교에서의 학년 연령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간의 실제학년 간 비교는 어려웠다. 따라서 분석 시에는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연령에 해당하는 11-13세, 실제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4-16세, 실제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7-19세로 나누어, 초등연령, 중등연령, 고등연령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비교집단인 남한 아동의 경우 새터민들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양천구, 노원구 등의 중하류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새터민 아동이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연령 집단의 평균연령이 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하였다. 집단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의 분포는 <표 1>과 같으며,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 과제

이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Berg(1979a)가 개발한 친사회적 도덕갈등 상황(prosocial moral dilemmas)과 기존의 척도들을 참고로 하여 이옥경(1995)이 한국 아동에게 맞게 갈등상황을 수정하고 재구성한 과제 중 본 연구문제에 적합한 세 개의 과제를 사용하였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자기와 유사한 아동을 더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Staub

<표 1> 연구대상

집 단	성 별	연 령			전 체
		초등연령(11-13세)	중등연령(14-16세)	고등연령(17-19세)	
새터민	남자	13	15	11	39
	여자	10	17	6	43
	소계	23	32	27	82
남 한	남자	31	41	32	104
	여자	24	30	28	82
	소계	55	71	60	186
전체		78	102	87	268

〈표 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새터민 아동			남한 아동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현재 학년	초등학생(4-6학년)	36(43.9)	현재학년	초등학생(4-6학년)	55(29.6)	
	중학생(1-3학년)	36(43.9)		중학생(1-3학년)	71(38.2)	
	고등학생(1-3학년)	5(6.1)		고등학생(1-3학년)	60(32.3)	
	검정고시 학원	5(6.1)		검정고시 학원	0	
종교	기독교	49(59.8)	종교	기독교	60(32.3)	
	불교	0(0.0)		불교	28(15.1)	
	천주교	5(6.1)		천주교	9(4.8)	
	없음	28(34.1)		없음	83(44.6)	
현재동거가족유형	부	5(6.1)	현재동거가족유형	부	8(4.3)	
	모	23(28.0)		모	10(5.4)	
	부모 모두	48(58.5)		부모 모두	165(88.7)	
	없음	6(7.3)		없음	3(1.6)	
북한에서 거주지역	함경도	64(82.1)	출생순위	첫째	97(52.2)	
	평안도	8(9.8)		둘째	80(43.0)	
	양강도	3(3.7)		셋째	7(3.8)	
	강원도	1(1.2)		넷째	1(0.5)	
	자강도	1(1.2)		3명	5(2.7)	
	평양	1(1.2)	2명	33(17.7)		
북송 경험 유무	유	8(9.8)	형제자매수	1명	132(71.0)	
	무	74(90.2)		0명	16(8.6)	
탈북시 동반가족유형	부	6(7.3)		아버지 직업	무직	5(2.7)
	모	25(30.5)	생산·노동직		26(14.0)	
	부모 모두	31(37.8)	판매·서비스직		59(31.7)	
	없음	19(23.2)	사무·관리직		79(42.5)	
제3국 체류기간	2년 미만	41(50.0)	전문·기술직		전문·기술직	13(7.0)
	2년이상-4년미만	12(14.6)			무직	75(40.3)
	4년 이상	17(20.7)		생산·노동직	27(14.5)	
입국후 경과기간	3년 미만	40(48.8)	어머니 직업	판매·서비스직	32(17.2)	
	3년이상-6년미만	29(35.4)		사무·관리직	37(19.9)	
	6년 이상	5(6.1)		전문·기술직	11(5.9)	

& Sherk, 1970)는 선행연구 결과와 북한사회에의 강한 집합주의의 영향(김윤영, 2002; 독고순, 1999)을 고려하여 과제의 특성을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즉 도움을 받는 상대자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예: 우리반 친구)일 때와 먼 관계(예: 다른반 친구)일 때로 구분하여 총 6개의 과제로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각 이야기 상황과제는 이야기 주인공이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의사결정), 결정한 방향에 따라 그렇게 결정한 이유(추론)를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이야기들은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아동학 전공자 10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사받았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데 무리가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아동이 응답한 추론내용에 대한 분석은 Eisenberg-Berg(1979b)의 분류기준과 채점기준에 따랐다. 또한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수준을 더 세부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추론강도(intensity of reasoning)에 따라 0점에서 3점의 점수가 부여되었다. 추론강도에 대한 점수가 크게 부여되어 추론수준에 따른 차이가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이옥경, 2003), 이 연구에서는 추론의 수준에 따른 점수만을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로 설정하고 추론강도 점수와 구분하여 보았다. 대상자의 응답은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및 본 대학원 아동학 석사과정 전공자 2명이 분류하였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이 .86, 친사회적 도덕추론강도가 .91이었다.

(2)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 과제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을 측정하기 위하여 Krmar 와 Valkenburg(1999)가 아동의 대인폭력 상황판단에 맞게 개발한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MIIV: Moral Interpretation of Interpersonal Violence) 척도를 새터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폭력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4개의 가상적 폭력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력 의도에 따라 '정당한 폭력'과 '부당한 폭력'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은 각 폭력상황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척도상에 폭력 가해자에 대한 허용 및 비허용 정도를 '매우 옳다(1점)'부터 '매우 잘못되었다(5점)'까지 5점 Likert 식으로 구성, 체크하게 하여 점수를 산정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고, 도덕판단 수준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추론의 측정은 Krmar & Valkenburg(1999)가 Eisenberg(1979a)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10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폭력상황에 맞게 6가지 유형으로 수정한 폭력 상황에 대한 도덕추론의 수준을 채점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추론수준 분류와 채점은 연구자 및 본 대학원 아동학 석사과정 전공자 2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89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이 연구를 위해서 초등연령 6명, 중등연령 7명, 고등연령 7명으로 구성된 새터민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서, 새터민 아동들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1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예비조사의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알거나 연락하고 있는 새터민 친구나 친척 등을 소개 받아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새터민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관과 새터민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도움을 받아 그 기관들과 연계된 새터민 아동들을 개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새터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및 노원구 등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2006년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에 대한 조사방법은 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동일하며, 예비조사 결과 새터민 아동의 경우 질문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남한 아동보다 어려움이 있음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이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집방법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새터민 아동 조사 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 이외에는 조사자와 거리를 두고 앉아 독립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남한 아동의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 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소통을 최대한 통제하여 가능한 유사한 조사환경을 조성하였다.

(표 3)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연령 및 집단에 따른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 및 친사회적 도덕추론강도 전반적 경향

범주	관계	연령			집단		평균
		초등연령	중등연령	고등연령	새터민	남한	
		M(SD)	M(SD)	M(SD)	M(SD)	M(SD)	
친사회적 추론수준	내집단	7.34 (2.02)	7.72 (2.12)	7.83 (2.20)	7.40 (2.26)	7.75 (2.06)	7.64 (2.12)
	외집단	6.68 (2.19)	6.34 (2.35)	6.57 (1.92)	6.76 (2.13)	6.42 (2.18)	6.52 (2.17)
	전체	13.95 (3.44)	14.01 (3.79)	14.39 (3.41)	14.06 (3.64)	14.14 (3.53)	14.12 (3.56)
친사회적 추론강도	내집단	5.92 (.62)	6.36 (1.02)	6.28 (.90)	6.18 (.83)	6.22 (.93)	6.20 (.90)
	외집단	5.91 (.54)	6.04 (.99)	5.94 (.75)	6.01 (.69)	5.94 (.85)	5.97 (.80)
	전체	11.83 (.83)	12.40 (1.84)	12.18 (1.36)	12.21 (1.30)	12.14 (1.52)	12.16 (1.46)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 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Scheffé 검정(Scheffé 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연령에 따

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아동의 친사회적 추론수준 및 추론강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3>과 같다.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 및 남한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이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 친사회적 도덕추론강도에서 모두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에서 내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의 점수와 외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의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3.26, df=1, 252, p<.001$). 이는 아동이 친사회적 상황에서 먼 관계일 때 보다 가까운 관계일 때 돕거나 돕지 않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추론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도덕추론강도에서도 내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도덕추론강도와 외집단에 대

<표 4>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연령 및 집단에 따른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과 도덕추론강도 변량분석

범주	변동원		차승합	자유도	평균차승	F
친사회적 추론수준	피험자간	집단	1,237	1	1,237	.20
		연령	18,468	2	9,234	1.47
		집단×연령	40,596	2	20,298	3.24*
		오차	1579,631	252	6,268	
	피험자내	내외	91,693	1	91,693	33.26***
		내외×집단	14,247	1	14,247	5.17*
		내외×연령	17,449	2	8,724	3.17*
		내외×집단×연령	15,037	2	7,518	2.73
		오차	694,712	252	2,757	
	친사회적 추론강도	피험자간	집단	.123	1	.123
연령			5,030	2	2,515	2.39
집단×연령			.408	2	.204	.19
오차			266,805	253	1,055	
피험자내		내외	3,958	1	3,958	11.15**
		내외×집단	.238	1	.238	.67
		내외×연령	1,325	2	.663	1.87
		내외×집단×연령	.785	2	.392	1.11
		오차	89,806	253	.355	

* $p<.05$ ** $p<.01$ *** $p<.001$

<표 5> 연령 및 집단에 따른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 단순 주효과 분석

연령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초등연령	새터민	21	12.48	3.61	-2.26*
	남한	55	14.51	3.23	
중등연령	새터민	30	14.40	3.80	.67
	남한	68	13.84	3.80	
고등연령	새터민	26	14.96	3.16	1.07
	남한	58	14.14	3.51	

* $p<.05$

한 친사회적 도덕추론강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1.15, df=1, 253, p<.01$). 이는 친사회적 상황에서 가까운 관계에 대해 추론할 때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추론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에서 연령과 집단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24, df=1, 252, p<.0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은 한 결과, <표 5>와 같이 초등연령의 경우만 집단에 따라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2.26, df=32.93, p<.05$). 즉 친사회적 상황에서 추론을 할 때 돕지

않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추론의 수준이 새터민 아동이 남한 아동에 비해 낮았다.

또한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에서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와 집단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5.17, df=1, 252, p<.0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은 한 결과, <표 6>과 같이 새터민 아동의 경우에서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2.38, df=76, p<.05$). 남한 아동의 경우에서도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7.45, df=180, p<.001$). 즉

<표 6>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집단에 따른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 단순 주효과 분석

집단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새터민	내집단	77	7.36	2.26	2.38*
	외집단	77	6.70	2.12	
남한	내집단	181	7.72	2.05	7.45***
	외집단	181	6.42	2.18	

* $p<.05$ *** $p<.001$

<표 7>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연령 및 집단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적 경향

범주	관계	연령			집단		평균 M(SD)
		초등연령	중등연령	고등연령	새터민	남한	
		M(SD)	M(SD)	M(SD)	M(SD)	M(SD)	
친사회적 의사결정	내집단	2.82 (.48)	2.70 (.59)	2.72 (.45)	2.77 (.48)	2.72 (.55)	2.74 (.53)
	외집단	2.36 (.79)	2.00 (.93)	2.10 (.65)	2.24 (.83)	2.10 (.81)	2.14 (.82)
	전체	5.18 (1.09)	4.69 (1.33)	4.83 (.86)	5.01 (.99)	4.82 (1.20)	4.88 (1.14)

<표 8>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연령 및 집단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 변량분석

범주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친사회적 의사결정	피험자간	집단	1.268	1	1.268	2.00
		연령	4.267	2	2.134	3.37*
		집단×연령	.310	2	.155	.24
		오차	164.067	259	.633	
	피험자내	내외	36.710	1	36.710	129.57***
		내외×집단	.178	1	.178	.63
		내외×연령	1.532	2	.766	2.70
		내외×집단×연령	1.102	2	.551	1.95
		오차	73.377	259	.283	

* $p<.05$ *** $p<.001$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 모두 도움 수혜자가 가까운 관계일 경우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이 높았다.

2.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전반적 경향은 다음 <표 7>과 같다.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 및 남한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주효과와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내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와 외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9.58, df=1, 259, p<.001$). 이는 아동이 친사회적 상황에서 도움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 수혜자가 먼 관계일 때보다 가까운 관계일 때 더 돕겠다는 응답을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서 나타난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Scheffé 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초등연령과 중등연령 사이에서 나타났다 ($F=3.37, df=2, 259, p<.05$). 이는 친사회적 상황에서 상대방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의 횟수가 초등연령 아동의 경우에 중등연령의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3. 대인폭력 의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대인폭력 의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도덕추론의 전반적 경향은 다음에 제시된 <표 9>와 같다.

대인폭력 의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대인폭력 의도와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에서 대인폭력 의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정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점수와 부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5.96, df=1, 260, p<.05$). 이는 아동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

<표 9> 대인폭력 의도, 연령 및 집단에 따른 도덕추론 전반적 경향

범주	폭력 의도	연령			집단		평균
		초등연령	중등연령	고등연령	새터민	남한	
		M(SD)	M(SD)	M(SD)	M(SD)	M(SD)	
도덕추론	정당	3.88 (1.87)	4.20 (2.15)	4.54 (2.26)	4.20 (2.07)	4.23 (2.14)	4.22 (2.11)
	부당	3.95 (2.00)	5.17 (2.25)	5.16 (2.16)	4.42 (2.07)	4.97 (2.25)	4.81 (2.21)
	전체	7.83 (2.91)	9.37 (3.31)	9.70 (3.37)	8.62 (3.13)	9.20 (3.36)	9.03 (3.29)

<표 10> 대인폭력 의도, 연령 및 집단에 따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변량분석

범주	변동원	집단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도덕추론	피험자간	집단	14.016	1	14.016	2.77
		연령	88.260	2	44.130	8.72***
		연령×집단	36.256	2	18.128	3.58*
		오차	1315.610	260	5.060	
	피험자내	의도	23.137	1	23.137	5.96*
		의도×집단	6.610	1	6.610	1.70
		의도×연령	12.768	2	6.384	1.64
		의도×집단×연령	5.957	2	2.979	.77
	오차	1009.898	260	3.884		

* $p<.05$ *** $p<.001$

초래된 결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행동의 동기를 고려했음을 의미한다.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에서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Scheffé 검증 결과 초등연령과 중등연령, 초등연령과 고등연령의 도덕추론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8.72, df=2, 260, p<.001$). 즉 초등연령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수준이 중·고등연령보다 낮았다.

한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에서 연령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58, df=2, 260, p<.0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표 11>과 같이 초등연령의 경우에만 집단에 따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2.11, df=76, p<.05$). 즉 초등연령의 남한 아동이 새터민 아동보다 대인폭력에 대해 더 높은 추론점수를 보였다.

<표 11> 연령 및 집단에 따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단순 주효과 분석

연령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초등연령	새터민	23	6.78	2.17	-2.11*
	남한	55	8.27	3.08	
중등연령	새터민	30	9.97	3.11	1.23
	남한	71	9.11	3.38	
고등연령	새터민	27	8.67	3.19	-1.99
	남한	60	10.17	3.37	

* $p<.05$

<표 12> 대인폭력 의도, 연령 및 집단에 따른 도덕판단 전반적 경향

범주	폭력 의도	연령			집단		평균
		초등연령	중등연령	고등연령	새터민	남한	
		M(SD)	M(SD)	M(SD)	M(SD)	M(SD)	
도덕판단	정당	3.86 (2.31)	3.35 (1.68)	3.63 (1.82)	4.04 (2.11)	3.39 (1.82)	3.59 (1.93)
	부당	9.15 (1.23)	9.20 (.96)	9.22 (1.17)	8.90 (1.34)	9.28 (1.10)	9.16 (1.19)
	전체	13.01 (2.76)	12.55 (2.01)	12.85 (2.12)	12.94 (2.63)	12.67 (2.22)	12.75 (2.35)

<표 13> 대인폭력 의도, 연령 및 집단에 따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 변량분석

범주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도덕판단	피험자간	집단	3.269	1	3.269	1.25
		연령	2.815	2	1.408	.54
		집단×연령	7.270	2	3.635	1.40
		오차	680.199	261	2.606	
	피험자내	의도	3235.774	1	3235.774	1463.98***
		의도×집단	25.021	1	25.021	11.32**
		의도×연령	4.922	2	2.461	1.11
		의도×집단×연령	8.965	2	4.483	2.03
		오차	576.878	261	2.210	

* $p<.05$ ** $p<.01$ *** $p<.001$

4. 대인폭력 의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대인폭력 의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도덕판단의 전반적 경향은 다음에 제시된 <표 12>와 같다.

대인폭력의도 및 연령에 따른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대인폭력 의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에서 폭력 의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정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판단 점수와 부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판단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463.98, df=1,261, p<.001$). 이는 정당한 폭력보다 부당한 폭력이 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에서 의도와 집단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11.32, df=1, p<.01$).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표 14>와 같이 정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에서는 새터민 아동이 남한 아동보다 높은 도덕판단 점수를 보였다($t=2.57, df=266, p<.05$). 부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에서는 남한 아동이 새터민 아동보다 높은 도덕판단 점수를 보였다($t=-2.24, df=131.196, p<.05$). 즉, 새터민 아동이 남한 아동보다 정당한 폭력상황에 대해 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남한 아동이 새터민 아동보다 부당한 폭력상황에 대해 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과 대인폭력 의도 및 연령에 따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은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연령 및 집단에 따라 다르다. 특히 친사회적 갈등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추론의 수준이 먼 관계보다는 가까운 관계일 때 더 높았으며, 가까운 관계일 때 추론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에 따라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 모두 먼 관계일 때보다 가까운 관계일 때 더 높은 수준의 추론을 하였다. 이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로의 요구에 더 민감하고, 상대와의 유사성을 높게 지각하며 차후 상호작용이나 상호의존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추론수준의 차이가 집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다. 즉 새터민 아동의 내외집단에 대한 추론수준의 차이가 남한 아동의 경우보다 더 작았다. 이러한 차이는 탈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낯선 이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했던 새터민 아동의 독특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새터민 아동들은 탈북 후 중국, 베트남 등의 제3국을 떠돌며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살면서 남한에 입국하기 위한 과정에서 탈북한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낯선 사람들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을 함께 지내게 된다(윤성아, 2004). 탈북과 남한에의 성공적인 입국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단지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새터민 아동들의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내외집단 구분의 모호함은 불안정하고 낯선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새터민 아동들은 가치관이나 인간관계에서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윤성아, 2004). 이러한 모호하고 이중적인 인간관계의 특성이 내외집단에 대한 추론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초등연령의 남한 아동이 새터민 아동보다 더 높은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을 보였다. 도덕추론은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등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달한다. 이러한 인지능력의 발달은 아동의 정의와 관련된 추상적인 도덕원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 사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추론하는 데 질적인 변화를 준다(Kohlberg, 1984). 새터민 아동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표 14> 대인폭력 의도 및 집단에 따른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 단순 주효과 분석

폭력의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정당한 폭력	새터민	82	4.04	2.11	2.57*
	남한	186	3.39	1.82	
부당한 폭력	새터민	82	8.90	1.34	-2.24*
	남한	186	9.28	1.10	

* $p<.05$

계속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심각한 영양장애와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이나 지능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었던 북한에서의 여건과 남한에 이주하기 전 제3국에서의 학습공백기간 때문에 남한의 같은 또래보다 학업능력이 대략 2-3년 정도 떨어진다(김진섭, 2004). 유아기·아동기에서의 초기경험과 자극은 지적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Bloom, 1964; Evans, 1975; White, 1976), 이 연구에서 11-13세로 구성되는 초등연령 집단의 탈북 후 경과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은 인지발달에 중요한 유아기·아동기를 북한의 기아상황과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아기·아동기의 영양적, 환경적 자극 결핍이 새터민 아동의 인지적 추론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수년간의 식량난과 북한에서부터 탈북과정으로 이어지는 생존경쟁을 경험한 새터민 아동들은 그 속에서 약육강식의 생존의 법칙을 터득하게 되면서 인간성의 피해를 경험한다(양정훈, 2005). 특히 개인생존의 집단주의적 보장이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로써 자기 스스로 자기 이익을 지키며 이기주의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서재진, 1999). 이러한 상황에서 새터민 아동들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발적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Durkin, 1995; Eisenberg, 1982)을 할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일이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다. 먼저 친사회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에서 아동은 먼 관계보다는 가까운 관계일 경우 더 도와주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별, 권위, 규칙 등의 외적 규제가 최소화된 친사회적 갈등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관계에 따른 부담이 각각 다르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까운 관계에 대한 공감과 상호의존, 도움에 대한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먼 관계에 대한 응보적 의무감이나 권위(Long & Lerner, 1974)는 최소화된 상태이므로 가까운 관계에 대해 더 도와주려는 동기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초등연령의 아동이 중등연령의 아동보다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에 대해서 더 도와주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초등연령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사회적 책임감과 응보적 규범 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면, 중등연령에 이르러서는 사회규칙의 절대성이 감소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중학교 이후에는 절대적이라 생각했던 규범이나 규칙에서 벗어나, 흑백논리보다는 상황의 다

양한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그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의 수행에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기중심적/육구충족적 추론의 경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감소하던 것이 청소년 중기에 이르러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Eisenberg *et al.*, 1991). 실제로 어떤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을 구하거나 협력하는 일이 줄어드는데, 이는 연령에 따른 인지적 기술과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칙의 절대성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게 되면서 도와주는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익, 자신에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작용할 환경조건들, 그리고 여러 다른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수준은 대인폭력 의도, 연령 및 집단에 따라서 다르다. 먼저 부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수준이 정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수준보다 높은 것은 도덕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폭력)에만 치중하지 않고, 행동의 의도를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서 보면 초등연령일 경우에 중등, 고등연령보다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수준이 낮았다. 특히 낮은 도덕인지단계 수준에 있는 아동일수록 권위적 인물에 의해 제공된 규칙에 더욱 의존하고, 공격행위의 결과와 행위처벌의 유무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동기는 이해하지 못한 채 폭력묘사 장면에만 몰입하며, 폭력을 사회적 규범으로 왜곡된 일반화를 할 수 있다(Kohlberg, 1984; Piaget, 1965). 집단에 따라서는 초등연령의 남한 아동이 새터민 아동보다 추론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친사회적 도덕추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지발달에 중요한 유아기·아동기에 적절한 자극 및 교육을 받지 못한 경험이 새터민 아동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폭력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특히 자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발달된 조망수용 및 감정이입능력으로 인한 높은 도덕추론수준은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Click, 1996)시켜서 타인과 만족할 만한 사회적 관계를 갖게 하며,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변인으로 제안되어 왔다(Hoffman, 1977). 그러나 인지적 자극과 사회적 경험이 결핍된 새터민 아동들은 이러한 조망수용 및 감정이입능력에서도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의도와 관련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내면화되고 공감된 추론보다는 정형화된

추론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이 내면화되고 공감된 추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 아동과 비교하여 다양한 폭력상황에 노출되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가 많았을 새터민 아동의 특수한 경험을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일탈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아야 했고, 사회와 가정, 또래관계에서 빈번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새터민 아동들은 폭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양정훈, 2005). 공격행동에 참여하거나 폭력을 승인하는 아동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추론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Bennett, 1994; Goldstein & Huff, 1993; Ward, 1995)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이런 양가적인 입장에 따른 낮은 도덕추론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아동의 도덕판단은 대인폭력 의도 및 집단에 따라서 다르다. 즉 새터민 아동들이 남한 아동들보다 정당한 폭력상황에 대해 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남한 아동들이 새터민 아동보다 부당한 폭력상황에 대해 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역시 폭력의 의도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Piaget, 1932), 인지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경험의 중요성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북한사회의 폭력성과 새터민 아동의 공격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억압된 체제와 감시, 집단성분에 따른 차별 등으로 인해 감정이 억눌려 왔다. 특히 지난 수년간의 식량난으로 대규모의 아사사태와 생존경쟁의 과정에서 인간성이 심각하게 피폐되고, 더불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과 스트레스, 분노, 갈등이 폭력적 성향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학생들은 고등중학교 시절부터 학급별로 세력싸움을 하는 패를 만들며, 이러한 폭력조직은 북한의 고등중학교에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민성길, 2000).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 아동은 남한의 또래들에 비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흑백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뜻을 좌절시키거나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나이의 아래 위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안면을 바꾸어 심한 욕설과 만말을 퍼부어 대는 경향을 보인다(양정훈, 2005). 이렇듯 새터민 아동들은 북한에서부터 폭력적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제3국에서 뿐 아니라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이러한 만성적인 폭력성과 공격성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공격성은 학습된 것이며, 공격적 모델에의 노출은 관찰자의 추후 폭력을 실제로 증가시킨다(Eron, 1987; Singer & Singer, 1984; Van Evra, 1990). 즉 TV폭력예의 노출 등 영상화된 공격성에 대한 노출은 아동의 공격적 반응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노출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저변에 깔린 가치관과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Herold, 1986). 또한 폭력에의 장기간의 노출은 아동으로 하여금 폭력이 야기하는 고통에 무감각하도록 만들고, 타인에게 폭력적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성을 갖게 한다(Himmelweit, H. T., Swift, B., & Jaeger, M. E., 1980).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명백하고 극단적인 폭력에 사회나 가정의 보호 없이 장기간 노출되어 온 경험이 새터민 아동의 공격성과 충동성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공격적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좌절상황에서 각성수준이 높고 반응시간이 빠르며, 충동적 성향을 갖는다. 의사결정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빠른 반응이 의도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폭력을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정태연, 윤진, 1992). 이러한 특성이 새터민 아동이 대인폭력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성과 충동성은 비단 도덕판단의 문제에서 뿐 아니라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새터민 아동들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존심에 손상이 오거나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거친 욕설과 태도, 심한 폭력성까지 보인다(김윤영, 2002). 따라서 이들의 공격적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격적 문제해결대안을 유지, 발달시키는 외부자극들을 감소시켜야 하며, 비공격적 문제해결 대안을 생성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공격적 대안보다 비공격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경험 및 자극의 결핍을 보완하고, 과거에 겪었던 극단적 폭력과 같은 외상적 경험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이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도덕추론의 양상이 달라지고, 대인폭력 의도와 연령에 따라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 및 도덕추론의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과 도덕판단 전반에서 새터민 아동은 남한 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추론과 판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내적 성숙의 힘보다는 외적 사회경험이 행동변화에 더 영향력이 있다(Bandura & McDonald, 1963)는 사회학습이론의 가정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즉 새터민 아동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핍은 이들의 사회인지능력을 제한하여 더욱 단순하고 위축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과도한 폭력의 경험은 공격성을 자극하여 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추론과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새터민 아동의 사회적 경험과 인지적 결핍을 보완하고 도덕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새터민 아동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여, 대부분 가족과 동반 탈북 및 입국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남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능력 및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은 교육 수준, 부모와의 동거유형, 부모의 직업 및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데, 대상의 특수성과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러한 배경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새터민과 남한 아동으로 단순 비교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새터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새터민 아동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소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축적된 소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양적 방법을 통해 새터민 아동이라는 집단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새터민 아동은 남한 아동처럼 학교에 모여 있지 않으며,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새터민이라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기 때문에 이들을 표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80여 명의 새터민 아동들을 표집하여 이들의 특성을 알아본 것은 의미가 크다. 둘째,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인지발달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에 따라 도덕성 발달이 달라진 결과는 자라온 환경과 사회적 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경험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새터민 아동의 도덕성 발달의 양상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도덕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의 앞으로의 사회적 경험이 보다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와 또래관계에서 새터민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법과 도덕규칙 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남한사회에서 적응이 필요한 새터민 아동들의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이는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남한사회에서 새터민 아동들을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학교 생활과 또래관계가 중요한 아동기인 만큼 이 연구는 교사와 또래가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하며, 지지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도덕발달 및 친사회적 발달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표집된 대상들이 비교적 적응에 성공한 사례들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는 단독 탈북하여 가족 없이 홀로 학업 또는 대인 관계의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새터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새터민 아동이 '탈북'이라는 공통적인 경험에 의해 구분되어 있지만, 탈북과정에서 탈북 시 동반한 가족유형이나 3국에서의 체류기간, 복송경험 유무 등 다양한 배경요인에 따라 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새터민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명옥(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운(2006). 새터민 정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동북아논총**, 38, 249-269.
- 김윤영(2002). 탈북 아동들의 남한학교 생활과 정체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규, 박찬주(1991). 도덕성 발달과 측정. 서울:성원사.
- 김종경(1991). 아동의 감정이입 발달과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섭(2004). 탈북아동의 남한사회에서의 초기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독고순(199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성길(2000).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93-95.
- 민성길, 전우택(1997).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 **통일연구**, 창간호, 141-173.
- 박경원(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화(1989). 아동의 역할수용과 친사회적 도덕추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재진(1999).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통일연구원.
- 양정훈(2005). 북한(사회)폭력성이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607-630.

- 엄경남(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아(2004).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실태 및 문제 해결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경(1995).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경(2003). 과제의 특성에 따른 유아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익수(2001).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우택(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한국심리학회지: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 정명숙(2002).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5(4), 113-127.
- 정태연, 윤진(1992). 충동성과 공격성이 좌절상황에서의 사회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5(1), 29-40.
- 최이정(2002). TV폭력의 맥락적 요인이 어린이의 도덕판단과 도덕추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통일부(2006). 새터민 아동·청소년 입국 현황 통계자료.
- 한만길, 현주, 김창환, 오기성(1999).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교육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Astor, R. A.(1994). Children's Moral Reasoning about Family and Peer Violence: The Role of Provocation and Retribution. *Child Development*, 65, 1054-1067.
- Bandura, A., & Mcdonald, F. J.(1963). Influence of social reinforcement and the behavior of models in shaping children's moral judgem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274-281.
- Bennett, W. (1994). America at risk: Can we survive without moral values. *USA Today*. 14-16.
- Berndt, T. J. (1981). Effects of friendship o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636-643.
- Bloom, B. S.(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Wiley.
- Cl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urkin, K. (1995).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From infancy to old age*.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Ltd.
- Eisenberg-Berg.(1979a).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128-137.
- Eisenberg-Berg.(1979b). Relationship of prosocial moral reasoning to altruism, political liberalism, and intellig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 87-89.
- Eisenberg-Berg., & Hand, M. (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 Eisenberg-Berg., & Neal, C. (1979). Children's moral reasoning about their own spontaneous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228-229.
- Eisenberg-Berg., & Roth, K. (1980). Effects of identity of the story character and cost of helping in children's moral judg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17-23.
- Eisenberg, N.(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Eisenberg, N., Lennon, R., & Roth, K. (1983). Pr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46-855.
- Eisenberg, N., & Miller, P. A., Shell, R., McNally, S., & Shea, C. (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49-857.
- Eisenberg, N., Shell, R., Lennon, R., Beller, R., & Mathy, M. (1987). Prosocial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2-718.
- Elmer, N. P., & Rushton, J. P.(1976). Cognitive-developmental factors in children's generosity. *British J.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277-281.
- Eron, L. D.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 435-442.
- Evans, E. D.(1975). *Contemporary influenc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2nd ed.)*, N.Y.:Holt, Rinehart, & Wiston.

- Farver, J. A., & Branstetter, W. H. (1994). Preschoolers' prosocial responses to their peers'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34-341.
- Goldstein, A., & Huff, C. (1993). *The Gang intervention handbook*.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Green, F. P., & Schneider, F. W. (1974). Ag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boys in three measure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 248-251.
- Herold, S. (1986). A synthesis of 1043 effects of television on social behavior. In G. Comstock (Ed.), *Public communication and behavior*. Orlando, FL: Academic Press.
- Himmelweit, H. T., Swift, B., & Jaeger, M. E. (1980). The audience as critic: A conceptual analysis of television entertainment. In P. H. Tannebaum (Ed.), *The entertainment function of television*. Hillsdale, NJ: Erlbaum.
- Hoffman, L. W. (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32*, 644-657.
- Hornstein, H. A. (1976). *Cruelty and kindness: A new look at aggression and altruism*.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Knight, G. P., Bohlmeier, E. M., Schneider, H., & Harris, J. D. (1993). Age differenced in temporal monitoring and equal sharing in a fixed-duration sharing task. *British J.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 143-158.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vol. 2)*. Sanfrancisco: Harper & Row.
- Krcmar, M., & Valkenburg, P. M. (1999). A scale to assess children's moral interpretations of justified and unjustified violence and its relationship to television viewing. *Communication Research, 26*, 608-634.
- Krebs, D. (1975). Empathy and altruism.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Long, G. T., & Lerner, M J. (1974). Deserving, the 'personal contact', and altruistic behavior by childre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551-556.
- Miller, S. A., & Bersoff, D. M. (1992). Culture and moral judge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Piaget, J. (1932).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New York:Harcourt, Brace.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 Y.: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Rosenkoetter, L. I., Huston, A. C., & Wright, J. C. (1990). Television and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123-137.
- Singer, J. L., & Singer, D. G. (1984). Intervention strategies for children's television. In I. P. Murray & G. Salomon(Eds.), *The future of children's television*. Boystown, NE.: Father Flanagan Boystown.
- Staub, E. (1970). A child in distress: The effects of focussing responsibility on children on their attempts to help. *Developmental Psychology, 2*, 152-153.
- Staub, E., & Sherk, L. (1970). Need for approval, children's sharing behavior and reciprocity in sharing. *Child Development, 41*, 243-252.
- Tietjen, A. M. (1986). Prosocial reasoning among children and adults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2*, 861-868.
- Van Evra, J. (1990). *Television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Erlbaum.
- Ward, J. (1995). Cultivating a morality of care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 culture based model of violence preven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65*, 175-188.
- Werebe, M. J., & Baudonniere, P. M. (1988). Friendship among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 of Behavioral Development, 11*, 291-304.
- White, B. L.(1976).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2006년 12월 10일 접수, 2007년 2월 12일 채택)